

마음만은 '프리미엄'...백화점 설 선물세트 '역대급' 특수

거리두기 강화·청탁금지법 상한액 상향...20만원 이상 매출 70% 차지 광주신세계·롯데·이마트 등 '프리미엄 선물' 강세...와인 등 인기 여전

강화된 거리두기 속 두 번째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선물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면서 광주 주요 백화점에서는 20만원 이상 선물이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19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달 14~18일 닷새 동안 식품군 설 선물 매출액은 전년 명절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설 명절 식품 선물 매출은 전년보다 45% 증가했는데, 올해 매출은 이보다 18% 더 많은 것이다.

올해 식품 선물 매출 가운데 수산물(28%)과 농산물(20%), 와인(27%) 등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명절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마음을 선물로 대신하려는 고객이 늘면서 '프리미엄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설 선물 본판매를 시작한 14일부터 닷새 동안 매출의 70% 이상은 20만원 이상 제

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매출 비중을 상품군별로 살펴보니 건강 부문이 18%로 가장 많았고, 수산(11%), 축산(9%), 농산(9%), 와인(7.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올해 설 선물 판매는 전년보다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30만~40만원대 선물이 가장 잘 나가고 있다. 비대면 명절 속에서 와인은 단일 품목으로 전체 선물 매출의 7.5%나 차지하며 고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설 선물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점포의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선물 매출은 지난해 명절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설에 비해서는 47.8% 증가하고, 2019년 설에 비해서는 21.0%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서는 와인을 필두로 한 주류 매출이 전년보다 28.6% 증가했다. 축산(13.4%)과 건강(11.6%), 수산(3.0%) 등도 증가

세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3개 이마트의 설 명절 판매에서도 1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점포의 지난달 16일~이달 17일 프리미엄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지난해보다 32.3% 증가했다.

10만원 이상 선물 매출의 증가율은 2019년(3.4%), 2020년(9.5%), 2021년(15.8%)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설 매출 가운데 10만원 이상 선물 비중은 8.0%로, 지난 2019년 설(3.9%)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마트는 자체 브랜드 '피코크'를 내세운 20만원대 한우, 영광 참굴비, 황제갈치, 황제옥돔 세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보다 상품 수를 4종 늘린 30여 종으로 구성됐다.

김세민 이마트 광주점장은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 경향이 자리잡으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실속 있게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들어가며, 롯데슈퍼는 19일부터 돌입했다.

이들 매장은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선물 판매에 공을 들이며 행사카드 등으로 구매 때 최대 30% 할인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지하 1층에서 나주 박경중 종가 200년 전통이 담긴 '남파고택' 선물을 선보이고 있다. '씨간장·된장 세트' '찜보리굴비' '된장·고추장 세트' 등을 도어가 이정은씨가 협업한 선물 꾸러미로 만날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광주·전남 우수 농특산물 선물 꾸러미 최대 30% 할인 판매

온·오프라인 판매 병행

"농도(農道)에서 난 우수 농축산물로 설 선물하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농특산물 선물 꾸러미를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본부는 지역 우수 농축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 꾸러미를 오는 2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다.

판매 품목은 과일류(사과·배·한라봉), 잡곡, 축산물(한우·한돈·육포), 꽃감 및 무화과 가공품 등 26종이다. 이들 모두 최대 30~10% 할인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농협은 이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과 전국의 농협 계통사무소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

설 명절 선물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은 청탁금지법 가격 상한을 적용받아 20만원까지 구매·전달이 가능하다.

전남 농축산물을 온라인 구매하려면 농협몰(nonghyupmall.com) '내고향농산물'·전라남도에 들어가면 된다. 확산 흥어와 진도 구기자, 영광 굴비, 여수 돌산갯김치, 보성 녹차, 나주 배, 구례 산수유 등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한편 농협 광주지역본부도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27일 광산



박서홍(왼쪽 두 번째)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지난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농축산물 선물 홍보를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구 우산동 농협 광주본부 인근에서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연다. 행사에서는 광주지역 15개 농·축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50여 개 우수 농·축산물을 10~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명절 분위

기가 많이 침체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로 구성된 농협 설 명절 선물세트가 가족·친지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야마하골프, 리믹스 VD 아이언 무료 체험하세요

야마하골프 국내 공식 에이전시 ㈜오리엔트골프는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 '리믹스 원정대' 시타 제품에 신제품 리믹스(RMX) 'VD40 아이언'과 'VD 아이언'을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1만여명이 참여하는 시타 프로그램 '리믹스 원정대'는 기존 리믹스 220과 120 드라이버, 7번 아이언, 3번 및 5번 우드, 4번 및 5번 유틸리티에서 이번에 리믹스 VD40 아이언과 상급자용 VD 아이언을 추가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VD는 '벡터 디렉션'(Vector Direction)의 약자로 이번 리믹스 신제품 모든 라인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VD의 모든 클럽은 방향성에 중점을 맞춰 제작됐다.

리믹스 원정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VD40 아이언과 VD 아이언을 모두 20일간 무료



로 체험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택배비용은 체험자가 지불해야 한다.

미리 체험해보고 구매 후 3주 이내 단순변심까지 교환과 환불을 보장하는

업계 최초 '품질 보증 판매' 제도도 마련했다.

VD40 아이언은 요트 후미 바닥에 부착된 '방향키'(Rudder)를 떠올리는 형상의 '더블넥'(Double Neck)으로 디자인이 특징이다. 더블넥은 방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17.28kg의 힘이 넥 주변에 추가 발생해 헤드 균형을 잡아주고 직진성을 유지해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우 가격 지난해보다 4.8% 하락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전년보다 5%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암소 가격은 산지 시장 600kg 기준 606만9000원, 도매시장 기준 kg당 1만9430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평년보다 각각 6%, 7.3%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 평균과 비교해서는 4.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농협은 "지난해부터 상승한 한우 가격이 사육두수와 도축두수 증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날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설을 앞두고 강진완도축협 가축시장을 찾아 한우 출하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방역상태를 점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